

연중 제8주일

기도서 356 면(A해)

제1독서: 이 사 49, 14-15
 제2독서: 1 고린 4, 1-5
 복 음: 마 태 6, 24-34

숲 정 이

발행 원 인: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관
 편집 인: 홍 보 관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 론



홍부와 놀부

김 병 엽 신부

가난에도 암가난과 숫가난이 있다는데 홍부네 집에는 이 두 가난을 결비한 선비의 집이었다. 스물 네 나에게 입힐 옷이 없어서 이불에다 스물 네 개의 큰 구멍을 뚫어서 목만 이불 위에 내밀고 살았다. 여기에서 한 놈이라도 칩간을 갈 양이면 스물 세 놈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애비인 홍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매품을 팔러 가는 데 그 중 한 놈이 소갈머리 없이 다녀오실 때 송아지 할 마리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기가막힌 홍부 왈 “똥 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자식놈 왈 “키워서 무너진 허청 모서리에다 놓고 구워서 싹틔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였다. 조그마한 배를 채워주지 못한 부모로서 애석함과 철마구니 없는 애의 간청을 보고 혀를 차면서 매품을 팔러 길을 떠난다.

국민학교 여름방학 때이면 아침마다 학교에 나가 체조를 하였었다. 그런데 비가 몹시 온 어느 날 아침 서학동에서 초록바위를 건너가는 다리 밑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다리 위, 냇가 길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잠자는 사이에 빗물에 가구가 모두 떠내려 갔다는 것이었다.

우리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서 세기의 밤, 추위와 더위를 조절하여 입어야 할 의복, 비바람을 막는 집, 이 세 가지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 문화생활을 제외한다면 이것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의, 식, 주를 야구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베이스’라고 표현하였다. 주자가 이 베이스만 밟고 있으면 수비측에서 공으로 ‘터치’하여도 ‘세이프’이다. 그렇다고 주자는 베이스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홈(집)까지 들어가는게 목적인 것이다. 이와같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밥 좋은 찬을 먹고, 값비싼 귀고리, 값비싼 표범가죽의 코트, 다이어 받지, 수 십 층의 금집에서 산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야 하고,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물질에만 노예가 된 크리스찬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의 성경 말씀과 상통하는 것일 것이다. 하느님과 물질,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물질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되겠다.

(대전 신학대학)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자.

한국 순교 복자들의 시성식 일정이 석탄일 이틀 전으로 정해진 데에 대해서 신문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왜 하필이면 석탄일 이틀 전이고, 그 장소마저도 최근에 들어 판페가 된 불교측의 촛불 봉축행사가 시작되는 여의도 광장이냐는 것이다.

시성식의 장엄한 식전에 모여들 천주교 신자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는 여의도 광장에서 치루었다. 그러나 교황 성하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을 생각하면 사실 마땅하게 넓은 장소도 이 나라에는 없다. 그러다보니 약간 비좁게 느끼면서도 여의도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정이다. 그리스도교의 일치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인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가톨릭이 일부러 그런 일정을 택했음은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앙금처럼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외자의 일방적인 심정일 뿐이고, 교황청과 한국 정부 당국과 한국 천주교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외교관계의 깊은 숙사정은 모를 일이다.

그런 가운데에도 시원한 이야기는, 이번 행사에 한국 천주교회의 이름으로는 현수막이나 선전탑을 길거리에 내걸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미 국제적으로 확정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도량있는 이야기로 들려 박수를 보낸다. 이해와 양보와 협조를 배놓는다면 종교계의 또 다른 특징을 어디서 찾을까.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 우리끼리의 행사라면 지금이라도 장소를 유서깊은 새남터, 한강 백사장으로 바꾸었으면 싶다.

숲 정 이 산 채



가톨릭 노동자는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김 종 철(요셉)

인간은 <타고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베르톨리아노의 말이 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에베소 1, 5)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마도 이 세상에 첫 숨을 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로 물리움을 받은 몸이었으나 인본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주님 일생의 그 결허함과 정결함, 극기의 마음, 온갖 수난을 이겨내는 마음, 가난의 생활을 즐겨하는 마음, 역경에서의 용감한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은채 우상을 섬기고 화내고 성내며 세상의 유희에 휩쓸리며 주님의 첫째 제명인 사랑을 잊은 채 아버지 하느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느님을 아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빛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이 죄인의 가정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안에서 사랑의 눈을 뜨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십니까?

이제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신명기 6, 5)고 하신 하느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뜨거워지는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안에 머물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부르고 뵈게 되기를 열렬히 기도드리며 내 마음을 비움으로써 주님을 내 마음에 결손되어 모셔 거둬 태어나는 참 기쁨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오늘도 셋째마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해서 "고통의 신비"가 저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뿐입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이 죄인의 가정에도 밝게 비쳐 회개와 통회의 정이 넘쳐 흘러 주님안에서 거둬 태어나 내 일생을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리며 당신의 그 사랑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나 거창한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온 일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젖 떨어진 어린 아기, 어미 품에 안긴 듯이 내 마음 평온합니다"(시편 131, 1-2).

손수 나를 빛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단돈 백원의 불신

양 베 드로

서로 믿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었던 체험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나는 차비가 떨어져서 곤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느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물건을 사러 온 줄 알고 반갑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저씨, 차비가 떨어졌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 아저씨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하고 통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현실이구나를 깨닫고 축적된 어께에 힘없이 가방을 들고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마침 차비가 떨어져서 그런데 백원만 빌릴 수 없을까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뜻밖에도 "학생 어디 살지" 하고 따뜻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용기를 내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학생, 나에게도 학생같은 자식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백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격하여 아주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 고마우신 아주머니의 얼굴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돈 백원을 갖다 드렸지만 그때의 고마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단돈 백원에 지나지 않지만 "너를 어떻게 믿어" 하고 거절하시던 아저씨, 그 분의 모습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풍토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요즈음 시대가 아무리 금권위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단돈 백원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풍토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꿇고 먼저 내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합일본당)

◎ 3월 11일은 200주년 기념주일

계획된 모든 사업은 당신의 기도와 정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황성하 한국 방문
-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
- 200주년 전국 기념대회
- 전국 사목회의
- 시복 시성 추진사업
- 맹인 무료 개안수술 사업
- 북한 선교 사업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킹 걸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위크엔드 간 이 북

런던 포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AN **남방**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451** 주인 유 율리안나

첼린저 주니어북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웬타에서는**

원하시는 안경으로 피로한 눈을 밝고, 편하고, 시원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 교구 내 지구 재조정

사제 평의회(2월 14일)에서는 새 교회법 정신에 따라서 지구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거리관계를 참조하면서 공동사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구 내 지구를 종래 7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재조정하였다.

따라서 현 사제평의회와 참사위원들은 일괄 사표를 내게 되고 각 지구 연장 사제가 임시의장이 되어 새로운 사제평의회를 선출하게 된다.

재조정된 지구는 다음과 같다.

- 1지구 : 전주시 및 완주군 내 본당
- 2지구 : 이리시 및 익산군 내 본당
- 3지구 : 군산시 및 옥구군 내 본당
- 4지구 : 정주시 및 정읍군, 김제군, 부안군, 고창군 내 본당
- 5지구 : 남원시 및 남원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내 본당

□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박 중신 신부)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갖는다.

- 3월 7일(수) : 지혜와 예견-박 중신 신부 8일(목) : 성령 세례-박 중신 신부
- 9일(금) : 성령의 여러 은사-김 보나 수녀 10일(토) : 영들의 분별-김 정원 신부
- 시 간 : 오후 7시 30분~9시
- 장 소 : 효자동(파티마) 성당
- 지참물 : 성경, 성가집, 필기도구
- 대 상 : 성령쇄신 세미나 받으신 분들

□ 성서 교육 봉사자 연수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한 17,3)이라고 하십니다. 사랑도 믿음도 기쁨도 희망도 이 없으므로 비롯됩니다.

교구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일치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서 공부를 위한 봉사자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구인 전체가 성서의 말씀을 생활화하는데 뜻이 있으신 분은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 파 : 마르코 복음
- 강 사 : 양 요섭(이나시오) 신부-성서학 박사
- 일 시 : 3월 17일 오후 2시~18일 4시
- 장 소 : 전주 카톨릭 센터
- 준비물 : 성서, 필기구, 등록금(7,000원)

□ 이리 해화학교(정박아) 담요 보내기 접수(2월 2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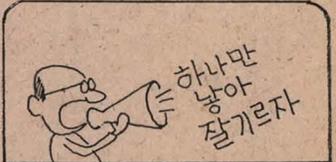
신부님들 : 담요 1장 · 현금 38,000원, 전동 신자분들 : 현금 50,000원,
중양 신자분들 : 현금 100,000원

□ 성인 김 대건 신부 —새로나온 카세트—

우리들의 자랑스런 김 대건 신부님의 일생, 그리고 그 업적이 드라마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어 아주 흥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트(4개)-7,200원, 개당 1,800원, 구입처-성바오로 서원

요십이(551) 김병오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 광 약 국
구시장 오거리 ①1800
이 루도비코(원식)
최 테레사(순정)

신학기 교우 특별우대
*학생용 가방
*여행용 가방
*핸드백
*신혼가방
설악산 가방
주 이 송임(세실리아)
☎ 6-6362
국민은행 ↔ 남문(남문여관 내 진물)

*클래식기타 · 크로마하프 개인 지도

기 타
바 이 올 린
크로마 하프
교육용 악기

비 인 악 기 사

고 광 빈(베드로)
(구 서중알 시내버스정류장 옆, 제일예식장 건너편)
☎ 5-4609

□마춤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페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① 6951
정 인 기(논지노)

*정통하이패션

리하수®
(루하수)

전주 개 점
전주시 중앙동(이시제점 앞)
☎ 2-5375
이 영 숙(마리아)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 ☆ 축! 무주 사제관 준공: 3월 1일<목>, 11시 30분-경축미사
1. M·B·W 새 분당상 목상회: 27일 오후 1시30분~29일, 장소-센타, 접수-교육국, 참가비-2만5천원
 2. 제3차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3월 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타 대상-레지오 마리에 간부와 단원, 참가비-2천원
 3. 사무장 연수회: 3월 5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타
 4. 가톨릭 센타 예비자 교리: 매 금요일 오후 7시 30분~9시
 5. M·E '참 부모가 되는 길': 3월 1일 오전 10시, 장소-장계 성당
 6. 제2지구 울뜨레아: 26일 오후 2시, 장소-대야 분당
 7. 제1지구 중·고등부 학생회 정기총회: 26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참가비-5백원

(중앙)

전화 ⑩1711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김인협

1. 남성 푸르실로 20차: 6명 참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M·B·W(공동체 목상회): 2월 27일~29일
3. 수녀님 이동: 김피아·장다리아·이소피아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나 마드레·전세시리아·김다미안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비자 모임(복자반): 3월 4일 개강, 오전-9시
5. 중학생 교리: 26일 9시 미사후, 강당 앞
6. 벽돌 불현: 8, 244장
7.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원-이귀준·이춘상, 5천원-이연년·이영순, 1만원-원일-박부레·박귀녀; 2만원-김영애·박매순, 1만원-박봉하·신순철·이동진, 5천원-김순금, 3만원-이수진, 2만원-이영진

□ 지난주 봉헌금: 1,076,971원 교무금: 696,400원

(노송동)

신부 ⑩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유 ②7032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구역 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 8시
2. 대의원 릴레이: 다음주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2시로 변경합니다
4. 중등부 소식: 정기총회-오늘 오후 5시 신입생 환영회-오늘 오후 4시
5.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하여 분당운영에 협조합니다
6. 사도회 상임위원회: 3일 오후 6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성지가지 가져오세요: 다음주일까지

□ 지난주 교무금: 146,800원

(덕진)

신부 (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 (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 (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릴레이의: 오늘 공식미사 후
2. 영화상영: 서울왕의 최후-오늘 저녁미사 후 (일장권-500원)
3. 중·고생 1일 피정: 27일 밤 8시(철야)
4. 직장여성 '만나회' 발족: 29일 밤 7시 모임
5. 사도회 상임위원회: 3일 오후 3시
6. 진복유치원 개원: 3월 6일 예비모임-2월 28일 오전 10시
7. 성지(빨마)가지 회수: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8. 주일학교 교사 동계 공소방문: 4개공소 동시 오전 10시, 27일~29일
9. 금주 분당청소: 중·고 학생회(3일 오후 3시)
10. 다음주 모임(예교): 요새회, 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530,820원 교무금: 473,000원

(복자)

전화 ⑩52388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 ☆ 3월은 성요셉 성월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사제관 회의실
 2. 주일학교 개학: 오늘 오후 2시, 어린이 미사 3시 부모님들 협조 바랍니다
 3. 첫철례 6·7: 3월 2~3일 저녁 7시
 4. 복자신협 정기총회: 오늘 오전 11시20분, 복자성당
 5. 수녀원 헌금: 비품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의 모친, 순결하신 정녀, 황금 궁전, 셋별LM 헌금 감사합니다

6. 일요일 12시 쉼지도자 모임: 김승환, 최운석, 한나희, 김운순, 정은자, 송세란, 최숙경
7. 금주전례: 해설-이경순, 독서-①장기연 ②이갑진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김인식

□ 지난주 봉헌금: 110,816원 교무금: 516,700원

(술정미)

전화 ⑩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⑩9567 사도 회장 김수길

- ☆ 환영: 김철철리아 수녀님 새로 오셨습니다
1. 오후회·애령회 릴레이: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 정·부회장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3. 주일학교 개학식: 다음 주일부터 유치부와 1학년은 부모님이 데리고 오십시오
 4. 신학생 후원회: 1구역-36,000원
 5. 재의 수요일(3월 7일): 3월 4일까지 성지가지 가져 오십시오
 6. 봄 판공 할고: 사도행전 전체(M·B·W 목상회와 M·E 교육 참여자는 참고를 면제함)
 7.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이기호·하정희 기도-이규철·유희자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홍성조·이순자 기도-정주복·허운순

□ 지난주 봉헌금: 188,070원 교무금: 513,500원

(전동)

신부 ⑩6208 주임 신부 김치길
전화 수녀 ⑩3222 보좌 신부 박찬일
수녀 ⑩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교무금 신입하세요
5. 예비자 교리반 안내 수·목요일-저녁미사 후(박찬길 신부) 금요일-오전 10시30분(김세시리아 수녀) 토요일-오후 3시30분(임마리토사 수녀) 일요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6. 주일학교 자모회 새 임원 탄생: 회장-윤로사, 부회장-정울리나, 총무-양아네스. 수고하시겠습니다. 구입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7. 주일학교 졸업식: 오늘 3시 미사후 졸업생 많은 참석 바람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택 저녁미사: 해설-이애실, 독서-①김희진 ②최중만

□ 지난주 봉헌금: 667,170원 교무금: 515,500원

(호자동)

신부 ⑩0915 주임 신부 박종신
수녀 ⑩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예비신자 모집: 3월 18일까지
2. 수요성서 강좌③: 창세기 12~22장, 아브라함
3. 사목방문: 28일-태하아파트, 3월 2일-거성아파트
4. 유치원: 김혜드릭 수녀님 오심
5. 이리 해화소년원 방문: 오늘 오후 2시
6. 성모기사회: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7. 목요일 미사: 새벽6시, (센타 목요성서 강좌 관계로)
8. 다음주일 모임: 꾸리아-오후 2시 사도회-저녁 8시
9. 차주전례: 독서-①황희상 ②이경순 안내-남자(황희상, 이교성) 여자(전의순, 김화자)

□ 지난주 봉헌금: 265,310원 교무금: 276,000원 미수금: 142,000원